

해태 통산 V9·삼성 통합 4연패…아름다운 장기집권

KBO를 지배한 5대 왕조

1982년부터 2016년까지 34년 한국시리즈가 개최됐다.(1985년엔 삼성이 전·후반기 우승으로 한국시리즈가 개최되지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강팀이 탄생했고, 리그를 지배했다. 그러나 2년 이상 연속으로 한국시리즈(KS)를 제패한 팀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2016시즌 전까지 2년 연속 KS 우승팀은 해태(KIA의 전신)와 삼성, 현대, SK 단 4개 팀 뿐이었다. 올해 두산이 NC를 꺾고 KS 챔피언이 되면서 5번째로 2회 연속 우승팀에 이름을 올렸다. 야구팬들은 2년 이상 KS 정상을 지킨 팀을 '왕조'라 부른다. 장시간 리그를 완벽히 지배했다는 표현이다. KBO리그 '두산 왕조'의 탄생을 계기로 역대 KBO왕조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되돌아 봤다.

9년 우승·50번 골든글러브…전무후무한 해태의 시대

●해태 왕조 : 카리스마 김응룡과 '검빨 유니폼'의 공포

해태는 1983년 첫 우승을 달성했다. 1986년 KS 정상에 다시 오른 후 89년까지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해태는 1996~97년에도 2시즌 연속 우승을 맛봤다. 91년과 93년에는 징검다리 우승을 차지했다. 장기간 집권한 진정한 왕조였다.

해태는 1차 지명 인원 제한이 없던 1980년대 초반 광주일고, 광주상고(현 동성고), 군산상고 등에서 배출된 최고의 유망주들이 입단했고, 김응룡 감독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막강한 전력을 구축했다. 선동열, 조계현, 이강철, 이대진 등 전설적인 투수들이 있었고, 이종범, 김성환, 김봉연, 한대화, 이순철 등 강타자가 즐비했다. 상대팀이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기가 죽는다는 검은색 바지, 붉은 색 상의가 상징하는 강한 근성도 큰 힘이였다.

해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단이었지만 계속해서 초특급 고교, 대학 선수들이 입단하면서 장기간 리그를 지배했다. 김응룡 감독은 연이어 파격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팀에 역동성을 심었다. 작전도 단순했고, 같은 시기 다른 팀에 비하면 훈련양도 적었지만 엄격한 규율 속에 하나로 뭉친 팀워크가 강했다. 해태는 9년의 우승과 함께 50번의 골든글러브 수상, 7번의 시즌 MVP도 배출했다.

그러나 1987년부터 1차 지명 숫자가 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1990년대에는 실질적으로 1명으로 제한되기 시작하며 균열이 시작됐다. 2000년 프리에이전트(FA)가 도입된 후 급속한 붕괴를 겪었다.

‘4년 연속 정규시즌·KS 통합우승’ 새로 쓴 역사

●삼성 왕조 : 막강볼펜으로 구축한 역대 유일 통합 4연패

삼성의 전성기는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로 나뉜다. 삼성은 2000년 FA제도가 도입된 후 리그 최고의 스타들을 싸출이했다. 재정이 나빴던 해태와 쌍방몰에 막대한 현금을 주며 선수를 트레이드 하기도 했다. 여기에 명장 김응룡 감독을 영입해 2002년 첫 번째 KS 우승의 한을 풀었다. FA투자는 계속됐고, 당시만 해도 다른 팀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역 메이저리그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다. 2005년 사령탑에 오른 선동열 감독은 강력한 볼펜을 구축해 7회 이후 좀처럼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자키는 야구'를 내세워 2년 연속 KS 정상에 올랐다.

이후 삼성은 외부 FA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1990년 이미 완공한 전용 훈련장과 국내 구단 중 유일하게 오키나와에 직접 시설 투자를 한 스프링캠프를 갖춘 인프라로 육성에 공을 들였다.

2011년 삼성 사령탑에 오른 류중일 감독은 선동열 감독의 자키는 야구를 계승하고 완벽한 수비시스템, 그리고 타선의 강화를 통해 진정한 왕조를 세웠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은 666경기에서 400승으로 승률 0.611, 5년 연속 페넌트레이스 우승, 4년 연속 KS 우승을 차지했다. 4년 연속 정규시즌과 KS 통합우승은 전성기 해태도 다가가지 못한 영역이다.

‘투수력·기동력·타력’ 완벽했던 2000년도 절대강자

●현대 왕조 : 스타군단 완벽 시스템으로 최강팀까지

해태, 삼성과 함께 역대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현대는 막대한 자금력과 프런트와 현장의 지혜로운 협업 속에 탄생한 시스템이 돋보인 구단이었다.

현대그룹은 1994년 아마추어 현대 피닉스를 창단해 아마추어 유망주를 싸출이 했다. 1996년 태평양을 인수해 KBO리그에 참여하면서 현대 피닉스에서 막대한 계약금을 받은 선수들이 각각 다른 팀의 지명을 받고 프로에 입단했다. 그러나 계약금 반환 문제로 박재홍 등 대형 선수들은 트레이드 등을 통해 현대로 입단했다. 롯데는 피닉스에 입단했던 국가대표 투수 출신 문동환을 지키기 위해 전준호를 현대로 대신 보내는 등 규약을 비껴가는 교묘한 편법을 썼는데, 이 덕분에 현대는 단숨에 막강한 전력을 구축했다. 명 유격수 계보를 잇는 박진만과 김수경, 조용준 등 새로운 투수들도 탄생했다. 현대는 1998년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쌍방몰에 거액을 주고 최고의 포수 박경완도 영입하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김재박 감독은 김시진 투수 코치, 김응달 타격 코치 등에게 상당 부분 전권을 주며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현대는 1996년 KS 준우승으로 강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고, 2000년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정민태, 정명원이 선발과 마무리에서 활약한 마운드는 리그 최정상이었고, 탄탄한 수비에 기동력, 그리고 심정수와 외국인 타자가 활약하며 장타력까지 갖춘 완벽한 팀으로 기억된다.

FA영입과 유망주로 전력 완성한 21세기 야구왕국

●SK 왕조 : 육성과 투자의 조화로 비상한 비룡

해체된 쌍방몰을 기반으로 창단한 SK는 2003년 조범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역대 최고의 포수 박경완을 FA로 영입해 4위로 시즌을 마쳤고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최정, 정근우, 송은범, 박재상 등 유망주들의 집중적인 육성이 이뤄졌고, 김재현의 FA영입 등 꾸준히 전력 상승에 공을 들였다.

2007년 취임한 김성근 감독은 전력분석 시스템을 통한 주전과 비주전이 구분되지 않는 선수기용과 파격적인 투수 기용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완성된 전력을 기반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정근우, 최정 등이 만개했고 김재현, 박재홍 등 베테랑들의 활약이 더해졌다. 김광현이라는 리그 최정상급 좌완 투수도 탄생했다. 박경완과 만난 투수들의 위력도 대단했다. SK는 2008년 KS 2연패에 성공하며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2009년 준우승했지만 2010년 다시 정상에 올랐다.

양의지·유희관…육성시스템으로 활짝 핀 신흥 왕조

●두산 왕조 : '화수분 야구'의 결실이 피어나다

두산이 왕조의 서막을 열 수 있었던 데는 '화수분 야구'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두산은 전통적으로 외부 스타플레이어를 영입하는데 인색했다. 지난해 장원준(4년 총액 84억원)의 FA 영입 사례를 제외하면 두산은 거금을 들여 선수를 사오는 대신 2군에서 유망주들을 발굴하는데 공을 들였다. 투자 방향 역시 외부 시장이 아닌 이천 베어스파크(2군 훈련지)로 향했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2군 육성시스템(1983년)을 가동한 팀도 두산이었다.

그 결실은 2010년대 들어 꽃을 피웠다. 김현수(볼티모어)를 시작으로 양의지, 민병현, 유희관 등 현재 팀을 이끄는 주축선수들 모두가 두산의 품 안에서 탄생했다. 2016시즌 통합우승과 더불어 KS 2연패라는 대업도 이러한 '화수분 야구'가 뒷받침이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산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이러한 주축선수들이 모두 젊다는데 있다. 앞서 말한 선수들은 물론 김재환과 허경민, 박건우, 이용찬 등 대부분이 20대 중후반 나이에 걸쳐있다. 게다가 이들 모두가 가을야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희망적인 요소다. 최근 4년간 3번이나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은 두산 주축선수들은 앞으로도 거칠 것이 없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1986년 우승팀 해태



▲2014년 우승팀 삼성



▲2004년 우승팀 현대



▲2010년 우승팀 SK



▲2016년 우승팀 두산



해태 시절 김응룡 감독.

■역대 감독들의 KS 승부 역사

김태형 감독 KS 8연승 10연승 김응룡 넘을까

두산 김태형 감독은 지난해 두산 사령탑에 오르자마자 2년 연속 KS 우승을 지휘하면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반면 김경문 감독은 4번째 정상 도전에 나섰지만 또 다시 실패하는 비운을 맛봐 대조를 이뤘다. 그렇다면 역대 감독들의 KS 성적표는 어땠을까.

●김응룡 KS 10연승·9연승 1차례씩 달성

무엇보다 김태형 감독의 KS 우승 기록에서 돋보이는 것은 연승 행진이다. 현재 KS 무대에 서만 8연승이다. 지난해 KS 1차전에서 패한 뒤 내리 4연승을 올렸고, 올해는 4경기 만에 4연승 무패로 우승 고지를 밟았다.

KBO리그 역대 감독 중에 KS 무대 8연승을 경험해본 감독은 딱 한 명 존재했다. 전설의 해태 김응룡 감독이다. 김 감독은 KS에서 10연승 한 차례와 9연승 한 차례를 기록하는 신화를 썼다. 우선 10연승은 1986~1988년 3년에 걸쳐 달성됐다. 1986년 삼성과 만나 1승1패 후 3차전부터 3연승을 올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1987년 KS에서 삼성을 4승무패로 격파했고, 1988년 KS에서 빙그레에 초반 3연승을 올렸다.

그리고 1989년 빙그레를 상대로 1패 후 4연승을 거두더니, 1991년 KS에서 또 빙그레를 4연승 무패로 꺾었다. 1993년 삼성과의 KS 1차전 승리까지 9연승을 달렸다.

그 뒤를 잇는 KS 연승 기록이 지난해와 올해 김태형 감독의 8연승이다. 내년 혹은 그 이후 과연 해태 김응룡의 KS 연승 신화를 넘어설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그 밖의 기록들

김태형 감독은 KS 8승1패(승률 0.889)를 기록 중이다. 승률에서는 김응룡 감독을 넘어선다. 김응룡 감독은 해태와 삼성에서 10회 우승, 2회 준우승 신화를 썼다. 총 44승5무19패(승률 0.698)로 KS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 LG 백인천 감독과 1994년 LG 이광환 감독은 1차례씩 KS 무대에 나서 4전승 우승으로 KS 승률 100% 사령탑으로 남아 있다.

KS 최다승 2위는 김재박 감독으로 18승3무14패(승률 0.563)를 기록했다. 이어 김성근 감독(17승11패·승률 607), 류중일 감독(17승12패·승률 0.586), 김인식 감독(12승13패·0.480)이 뒤를 잇는다. 강병철 감독은 롯데를 2차례 우승 시키며 8승4패(승률 0.667), 선동열 감독은 삼성을 2차례 우승으로 이끌며 8승1무5패(승률 0.615)를 기록했다. 조범현 감독은 2차례 KS에서 7승7패로 반타작 승률을 올렸다.

반대로 역대 KS 최다패를 기록한 비운의 감독은 누구일까. 바로 김영덕 감독이다. 1982년 원년 OB 우승을 지휘했지만, 이후 준우승만 6차례(1984·86년 삼성, 1988·89·91·92년 빙그레) 경험하면서 12승1무25패(승률 0.324)를 기록했다.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올해까지 4차례 KS 무대에 올랐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치며 3승16패(승률 0.158)를 기록해 최다패 2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한편 정동진 감독은 1990년엔 삼성 감독으로, 1994년엔 태평양 감독으로 팀을 KS로 이끌었지만 2차례 모두 LG에 4전패로 물러났다. 총 8연패로 승률 0.000 감독으로 남아 있다. KS 4전패를 2차례 경험한 사령탑은 정동진 감독과 김경문 감독 2명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